



IMF, 세계경제 성장전망 하향 조정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IMF는 유럽의 부채위기 해결 부진,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방안 교착, 미국 경기둔화 등으로 2011년과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 때보다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.

- IMF는 9월 20일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1년 4.0%(6월 전망 대비 -0.3%p), 2012년 4.0%(-0.5%p)로 2010년(5.1%)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.
- 선진국은 미미한 회복세를 보이며 2011년 1.6%(6월 전망 대비 -0.6%p), 2012년 1.9%(-0.7%p)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
 -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유로지역의 2011년 경제성장률이 6월 전망치보다 각각 1.0%p, 0.4%p 하향 조정됨.
- 신흥국은 미국 및 유럽 등의 여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2011년 6.4%(-0.2%p)에서 2012년 6.1%(-0.3%p)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.
 - 중국, 인도의 2011년 경제성장률은 6월 전망치보다 각각 0.1%p, 0.4%p 하향 조정됨.

(단위: %, %p)

구분	9월 전망		6월 전망과의 차이	
	2011년	2012년	2011년	2012년
세계경제	4.0	4.0	-0.3	-0.5
미국	1.5	1.8	-1.0	-0.9
유로존	1.6	1.1	-0.4	-0.6
일본	-0.5	2.3	+0.2	-0.6
중국	9.5	9.0	-0.1	-0.5
인도	7.8	7.5	-0.4	-0.3
한국	4.0	4.4	-0.5	-

■ IMF는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,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고 언급함.

- IMF는 현재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활력이 약해지고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,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함.
- 각국 정부가 공조를 이뤄 정책개혁에 임하지 않는 한 미국, 유럽 등 주요국들이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함.
 - 유럽은 유로존 체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전념해야 하며, 미국은 정치적 분열을 지양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채무를 축소해야 하며, 중국은 내수의존도를 높이고, 브라질은 과열 경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함.

■ 또한, IMF는 지난 6월 4.5%로 내다봤던 우리나라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.0%로 0.5%p 하향조정함.

- 세계 경제성장 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.
- 아시아개발은행(ADB)도 최근 2011년 경제전망 수정판에서 201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.6%에서 4.3%로, 2012년 경제성장률을 4.6%에서 4.3%로 각각 하향 조정함.
-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대거 하향 조정하는 등 저성장 가능성을 제기함.
 - 모건스탠리는 세계경제 하방 위험뿐만 아니라 내수 위축(실질소득 악화, 고용 둔화 등으로 인한 국내소비 감소)도 한국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2011년과 2012년 각각 4.5%와 4.0%로 전망했던 성장률을 3.8%와 3.6%로 낮춤.
 -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 둔화와 더불어 2011년 1/4분기 중 예상보다 부진했던 건설경기 등을 들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011년 4.3%에서 4.2%로, 2012년 4.4%에서 4.2%로 하향조정함.
- 정부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2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4%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.
 - 당초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을 4% 후반으로 전망함.

(IMF 9/21, Financial Times 9/21, Wall Street Journal 9/21)